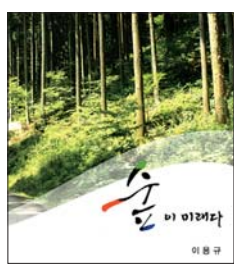


이용규기자 '숲이 미래다' 출간



생태문명에 관심을 가져온 현직 기자가 숲의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관찰하면서 그 중요성을 전하는 책을 냈다.

전날일보 이용규 기자는 최근 '숲이 미래다'(광인출판사 펴냄)를 출간했다. 책은 이 기자가 국내는 물론 숲의 부가까지 창출과 활용의 선진지라 할 수 해외지역을 찾아가는 탐방기 형식으로 구성됐다.

1부에서는 해외 숲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산림에 대해 이야기하며, 2부에서는 장성 축령산, 화순 SK랩핑공장, 감진 초당림 등 숲의 기능과 가치를 일깨워주는 국내외 모범사례를 들여다 보았다.

3부 '숲도 경영이다'에서는 숲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4부에서는 산림강국인 핀란드 등의 숲 관련 기관을 찾아 이들 국가의 숲 보호와 산업 정책에 대해 살펴봤다.

책은 복권기금(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으로 출간되었으며 초등학교 등에 비치돼 환경교육과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비매품.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극배우 윤희철

'자랑스러운 연극인상'



연극배우 윤희철(49·광주연극협회 부회장)씨가 한국연극협회가 수여하는 '자랑스러운 연극인상'을 받았다.

'베니스의 상인', '서툰 사람들', '에쿠우스', '느릅나무 그늘의 욕망' 등 100여편의 연극에 출연한 윤씨는 2006년 전국연극제에서 '강동통'으로 연기상을 수상했으며 광주연극제, 전남연극제에서 6차례 연기상을 받는 등 뛰어난 실력을 자랑하는 배우다.

올해도 연극 인생 32년 째인 윤씨는 1979년 극단 Y의 '화가 이중섭'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다양한 작품에 출연해왔다. 올해도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을 모티브로 한 번사극에서 주인공 번사를 맡아 연기하는 등 꾸준히 무대에 서 있다.

광주 MBC, 교통방송 리포터와 MC 등으로 활동했던 윤씨는 현재 극단 드라마스튜디오 대표를 맡고 있다.

시상식은 지난 27일 서울 아르코예술극장에서 열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연말연시 풍성한 문화나들이 떠나요

들뜨기 쉬운 연말, 가슴을 적시는 공연과 전시를 만끽하며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보자. 가족의 손을 잡고 '예술 산책'을 떠나보는 것도 새해 첫 연휴를 즐기는 새로운 트렌드다.

▲블록버스터 전시 즐겨요

연말 광주 미술계가 좀처럼 보기 힘든 대형 전시로 뜨겁다. 그 중심에는 인기 물이 중인 '키스 해링전'(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2011년 2월27일까지)이 있다.

키스 해링은 앤디 워홀과 함께 20세기 팝아트의 전성기를 이끈 인기 작가다. 이번 전시에는 '앤디 마우스'(Andy Mouse) (30년) 등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다. 내년 1월1일에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입장료 성인 1만원.

광주 무각사 문화공간 로터리 갤러리에서는 박노해씨의 사진전 '나 거기에 그들처럼'을 볼 수 있다.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에서는 시인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박노해씨가 지난해 12월 중동 지역에서 찍은 사진을 포함해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지역의

사람과 풍경을 담은 사진을 만날 수 있다. 13만여장 중 수동식 필름 카메라와 35mm 렌즈만으로 찍은 흑백사진 120여점을 고른 것이다.

전시가 끝나는 30일 오후 6시30분에는 박노해씨와의 만남 행사도 열린다.

광주시립미술관의 '베트남의 풍경과 정신전'(내년 2월6일까지)과 '움직이는 그림전'(내년 2월13일까지)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다.

'베트남'전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의 대표 작가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오랜 식민의 아픔과 가난, 사회적 불안과 불공정, 부패와 폭력, 인종 및 종교 갈등, 전쟁 등을 경험하며 새로운 미술 담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 베트남 현대 미술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이번 전시에는 구엔 반찌 등 베트남 대표작가 39명의 작품을 선보인다.

'움직이는'전에는 김벌이·신도원·이상필·이현진·방현우·허윤실·배재혁·최영준·박진현씨가 참여해 다양한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

이들은 관람객이 직접 작품 창작에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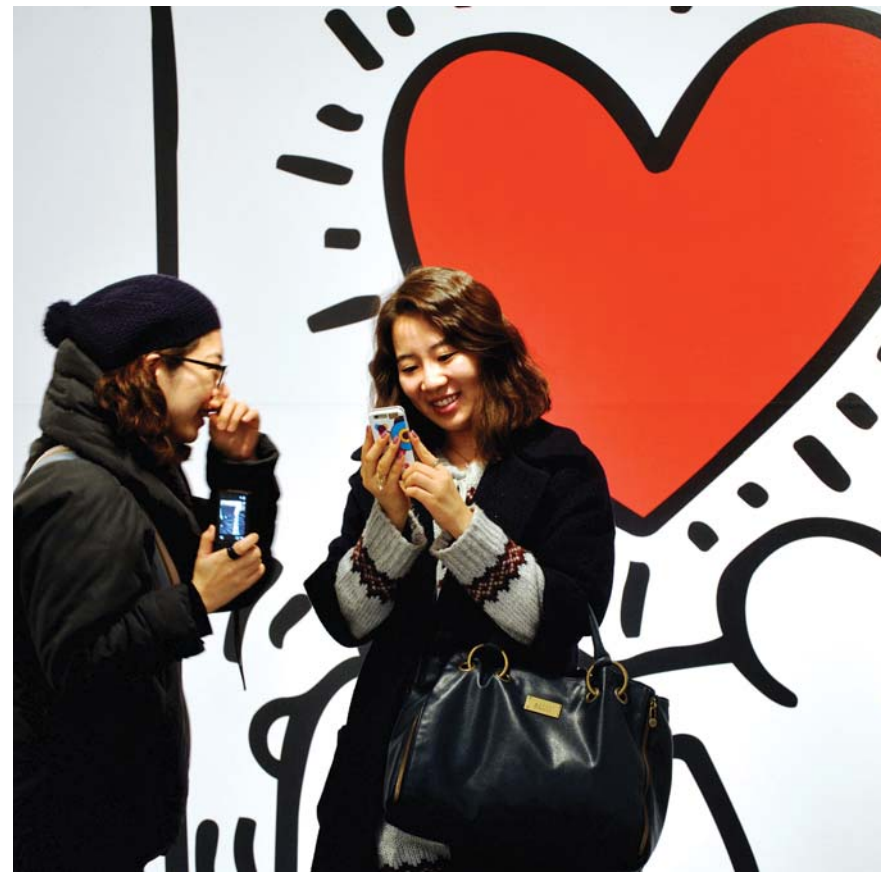
해 함께 완성해 나가는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를 선사한다. 벽에 걸려 있는 작품을 수동적으로 관찰하는 차원을 벗어나 어린이들이 작가와 작품 창작을 함께 하는 체험형 전시다.

이밖에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이원복)은 내년 1월30일까지 문화재사진연구소(소장 장선필)와 공동으로 '천불천탑 운주사'전을 연다. 문화재사진연구소 회원 11명의 작가들이 운주사를 배경으로 담은 사진 28점과 광주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운주사 관련 유물이 함께 볼 수 있는 전시다.

또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성낙준)는 내년 2월6일까지 '800년 전의 타임캡슐-태안 마도 수중문화재 발굴성과'전을 여는데, 2008년부터 올 해까지 태안 마도 해역에서 이루어진 수중문화재 발굴 성과를 지켜볼 수 있다.

▲클래식 공연, 콘서트도 풍성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은 오는 31일(오후 7시30분) 광주문화회관 소극장 '가족과 함께 하는 송년 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양방언의 작품으로



연말과 신년을 맞아 지역 문화계에서 풍성한 '문화 밥상'을 차려냈다. 사진은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키스 해링'전을 만끽하고 있는 관람객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

2002부산아시아엔게임 공식음악인 '프론티어', 김선제 곡 '아름다운 인생', 태권도를 소재로 한 '유급자 품새' 등을 들려준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등 캐롤을 들려주는 순서도 마련했다.

2010 마지막 날인 31일 순천 팔마체육관에서는 '2010 DJ.DOC 전국투어콘서트 뽕뽕스파티'가 열린다. 올해 '난 이런 사람이야' 등을 히트시키며 견재를 과시한 DJ.DOC 공연은 앉아서 관람하기 불가능한, 신나는 파티다.

광주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같은 날 밤 9

시30분부터 열리는 광주시향의 '거시기한 음악회-멜랑콜리' 역시 놓치기 아까운 프로그램이다. 극장 안 공연이 끝나면 대극장 로비에서 함께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며 흥겨운 음악회를 즐길 수 있다.

2층 100여석을 제외하고는 티켓이 모두 팔린 상태니 예매를 서두를 것.

조권 등으로 구성된 4인조 그룹 '2AM'은 새해 첫날 광주 무대에 선다. 1월 1일 오후 6시 염주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는 '죽어도 못 보내', '잘못했어' 등 히트곡을 들려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세계 비엔날레재단 총회 광주 개최 추진

광주비엔날레 재단 이사회, 내년 예산 45억 확정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전 세계 비엔날레 대표자들의 모임인 세계비엔날레 재단 첫 총회의 광주 개최를 추진키로 했다.

또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9월7일~11월11일) 예산을 45억원으로 확정했다.

재단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세계비엔날레재단과 재단, 광주시가 주최하고 유럽연합(EU)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하는 세계비엔날레 총회(내년 9월 19~22일·김대중

컨벤션센터)를 유치하기로 결정했다.

세계비엔날레 재단은 지난해 11월 각국의 비엔날레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현대미술 발전을 위해 발족된 국제기구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재정은 EU본부와 네덜란드 몬드리안 재단에서 후원한다.

세계비엔날레 총회가 결정되면, 세계비엔날레 재단 이사 12명과 전세계 각국의 비엔날레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세

계 미술계의 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세계비엔날레 포럼, 초청 리셉션, 광주 및 한국 미술문화현장 탐방 등이 함께 펼쳐진다.

대회 개최지 결정은 내년 1월 22일 세계비엔날레 재단 이사회와 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재단은 이날 또 제4회 디자인비엔날레의 예산을 확정했으며, 축제행사 분야에 1억5000만여원이 증액된 2억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계약제였던 3급 이하 직원 8명의 신분은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미술전문잡지 'NOON' 2호 발간

광주비엔날레 재단

광주비엔날레 재단(이하 재단)이 발간하는 미술 전문 잡지 '눈'(NOON) 2호가 나왔다.

이번 호는 '예술, 정치 그리고 현대미술'을 주제로 이용우 재단 상임부이사장과 아이웨이웨이 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감독의 특별대담을 실었다. 또 '기념화와 탈기념화'(Monumental & Unmonumental)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 및 작가와 비평가 5명의 글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는 '기념



비적 거대건축과 담당한 자연'에 대해, 비평가 김현도씨는 '탈기념화'에 대해, 송효상 2011광주디자인비엔

날레 공동감독은 '지문'이란 제목으로 기념화와 탈기념화에 대한 단상을 정리했다.

'눈' 2호는 전국 주요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가격 1만5000원. 문의 062-608-4250. /오광록기자 kroh@

온가족을 위해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온 가족이 믿을 수 있는 건강한 제품을 약속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 국가대표 건강기능식품 전문 기업,
비타민하우스와 함께 하세요.

Essential Multi Vitamin & Mineral for Men
162g(900mg×180정)

Essential Multi Vitamin & Mineral for Women
162g(900mg×180정)

Omega-3 DHA&EPA 오메가-3DHA&EPA
500mg×400캡슐(200g)

비타민은 비타민하우스 www.vitaminhouse.net / 대표전화 1588-8529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 한식 20가지)

6만원 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층별 시설 안내

- 5F 벨라지오홀(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 4F 객실, 신부대기실
- 3F 객실
- 2F 객실, 윌트니스센터
-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 BF1 대연회장, 페백실

***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 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 (상무지구 플렉서 옆) | www.hotelarthall.co.kr